

여러분께

가나자와시가 정비를 추진해 온 대관 공방 ‘가나자와 마치야 장인공방 (金澤町家職人工房)’이 다음 달에 공방 겸 갤러리로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시는 공방 개설을 통해 젊은 공예작가의 독립을 후원하고, 크래프트의 뿌리 깊은 기반을 일본 국내외에 발신할 목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가나자와 마치야 장인공방’은 막부 말기 마을 안에 세워진 상가(마치야)를 수리하고 시가 임대해서 유망한 젊은 공예작가와 장인들에게 저요금으로 빌려주는 시설입니다.

공방은 일반공개하여 관광객들이 제작현장을 볼 수 있게 하였으며, 그 외에 조금(彫金) 체험교실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더없는 건승과 활약을 기원하며, 일본 가나자와시 창의도시추진실에서 알려드렸습니다.

